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
조계종 교육부장 덕림 스님

“출가-교육-복지, 원스톱 지원·관리”

법계별 · 직무별 맞춤형 교육 강화
연수교육 이수 의무화로 평생교육
출가자 감소 따른 기관 조정 필요성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절충안 모색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지난 4월 1일, 30년 만에 삼원 체제를 일원화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기존 총무원·교육원·포교원으로 분리돼 있던 조직을 총무원 체제로 통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원은 교육부로 재편돼 승가 교육, 승적 관리, 승가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조직 개편 시행 두 달을 맞아, 교육부장 덕림 스님에게 현장의 변화와 하반기 운영 기조 및 포교 종책 추진 방안을 들었다.

Q 교육원이 교육부로 전환됐다. 조직 개편의 취지는 무엇인가?

가장 큰 이유는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조직 통합을 통해 종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빠르고 일관된 정책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편은 30년 만에 이루어진 대대적인 조직 개편으로, 단순한 구조 조정을 넘어 내부 혁신과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 교육, 포교 부문이 분산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운영되며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Q 일원화 후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현재 교육부는 승가 교육, 승적 관리, 승가복지 등의 업무를 총괄합니다. 이번 조직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스님 한 분에 대한 정보와 지원을 교육부에서 원스톱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출가와 동시에 승적 등록과 적합한 교육기관을 안내하고, 교육과정 이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연수교육 연계까지 일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고령이거나 건강상 지원이 필요한 스님에게는 승적 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도 빠르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 향상, 불필요한 행정 절차의 대폭 축소, 스님들의 편의성 제고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 업무 분화를 통해 각 분야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승가교육은 교육부, 재가자의 출가 장려는 포교부가 전담함으로써, 각 부서가 자신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재가자 출가 홍보부터 출가자에 대한 교육까지, 전 과정에서 정보 공유와 협업이 원활해져 출가자 감소나 탈종교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도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조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Q 포교부로 이관된 업무 협력 관계는?

조직 개편에 따라 출가상담과 홍보업무가 포교부로 이관됐습니다. 앞으로 포교부가 출가 관련 사업을 진행할 때 교육부가 보유한 자료와 정보를 적극 공유하며 긴밀히 협력할 예정입니다. 특히 출가 후 행자 활동 단계까지 함께 관리하고자 합니다. 출가를 유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출가자가 스님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출가 전 상담부터 출가 후 행자 과정, 그리고 승가교육까지 전 과정을 포교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출가자의 질적 향상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승가 인재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Q 지난 30년간 교육원의 대표적인 성과로 △승가교육과정 체계화 △승가고시제도 정착 △연수교육 정례화를 꼽을 수 있다. 시대 변화에 따른 재교육 과정인 연수교육은 그 필요성과 효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연수교육 운영 방향은?

연수교육은 스님들이 수행자로서 지속적으로 지식과 역량을 계발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사회적 요구도 계속 달라지는 상황에서 스님과 불교 지도자의 전문성 강화와 역량 향상을 위해 재교육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연수교육은 스님들의 포교 능력과 사찰 경영 역량, 사회적 역할 수행 능력 향상에 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향후 연수교육 운영 방향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법계별·직무별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연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 체계를 완성해 모든 스님의 전반적인 역량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Q 승가고시 제도 안착에 대한 평가는?

승가고시 제도는 수행자의 자격 검증 체계로 안착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각 급수별 입장 차이와 역할의 다양성 속에서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승가고시가 승가 구성원이 갖춰야 할 기본 소양과 자질을 점검하는 과정이자, 자격에 따른 책임과 역할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Q 하반기 주요 종책은?

세 가지 핵심 종책이 추진됩니다. 학인스님들을 위한 교육기관 지원을 강화하고, 연수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또 69기 수계교육을 통해 2025년까지 100명 이상의 출가자 배출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출가자 감소로 인한 교육기관 운영과 조정의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6월 예정된 운영위원장 회의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되 교육의 질은 유지하는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아갈 것입니다.



조계종 교육부장 덕림 스님은 “승가 교육, 승적 관리, 승가복지 등 업무 총괄로 스님 한 분에 대한 정보와 지원을 교육부에서 원스톱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 점이 일원화 후 가장 큰 변화”라고 말했다.

‘Restart’ 지역미래불자장학…원법사 ‘101호’ 기부

동국대 건학위, 5월28일
원법사 장학증서 수여식
“새로운 100회 위한 시작”

2021년 11월 시작돼 지난 5월 15일을 100회를 맞은 불교종립 동국대의 시그니처 장학제도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이 새로운 100회를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 스님)는 5월 28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포항 원법사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사진〉

포항 원법사(주지 해운 스님)는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의 시작을 알린 ‘1호 기부 사찰’로 새로운 100회의 시작을 알리기 위한 101회 기부에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포항 원법사는 제1·33·76·87·100회에 걸쳐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을 후원했고, 누적 후원금액은 약 6억 원에 이른다.

이날 수여식에서 포항 원법사는 법과대학 불교동아리 ‘불법단체’ 회장과 회원 10명에게 총 1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원법사 회주 운보 스님은 “보시를 ‘베푼다’라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갚는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면서 “사람의 몸을 받고 태어나 너와 내가 함께 어우러져 산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덕을 보고 빚을 지고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원법사의 원력을 시작으로 100회 장학금 전달이 있었고, 이를 통해 단과대학 불교동아리라는 도량 25채가 지어질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장학증서 수여 직후 장학생들은 원법사 사부대중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장학생을 대표해 이경현(법학과 2) 씨는 “이번 장학금은 부모님의 부담을 일부 덜어드리고 뛰어난 법조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학업에 더욱 정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제 바람을 꼭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 정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국제 스포츠 법조인을 꿈꾸는 윤성현(법학과 3) 씨는 “동국대 입학 후 불교와의 인연은 더욱 깊어졌고, 단순한 신앙이 아닌 삶의 태도로 받아들이게 됐다”며 “이번 장학금을 통해 저는 ‘받은 것을 다시 환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불교계 제작 종교교과서 본심사 예비 합격

조계종 포교부 5월 28일 발표

조계종 총무원 포교부(부장 남전 스님)가 “불교계가 제작한 고등학교 종교과목 교과서 ‘삶과 종교’가 5월 28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본심사에 예비 합격했다”고 밝혔다. 향후 심의를 거쳐 8월 말 최종합격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최종합격하면 내년부터 일선 고등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삶과 종교’ 제작은 2024년 6월 포교부와 교법사단의 첫 논의에서 불교계 교과서 부재를 인식하면서 비롯됐다. 이후 포교부는 교육청의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종교 교과서 개발 사업을 추진했고, 동국대출판문화원·불교교육연합회·교법사단과 적극 협력해 교과서 제작에 나섰다. 그렇게 탄생한 ‘삶과 종교’를 올해 2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심의를 신청했다. 고등학교 인정 교과서는 과목별로 주무 교육청이 배정되어 있으며, 종교교과서 심의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담당하고 있다.

현재 교육청 심의를 통과해 인정을 받은 고등학교 종교 과목 교과서는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개신교계 교단인 장로교계, 감리교계에서 출간한 ‘삶과 종교’ 3종으로, 불교계에서 제작한 교과서는 부재한 상황이다.

포교부장 남전 스님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불교계에서 개발한 최초 종교 교과서가 출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불기2569(2025) 을사년

해인사 生前預修齋 49일 기도

천년을 이어온 법보의 향기, 팔만대장경의 진리가 숨 쉬는 도량,
법보종찰 해인사에서는 이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참회와 발원을 통해
내세의 안락을 기원하는 **‘생전예수재生前預修齋’**를 봉행합니다.
생전예수재는 살아있는 동안 지은 허물과 업장을 깊이 참회하고
지극한 신심으로 공덕을 닦아 내세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인연을 짓는 큰 복전이 될 것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생전예수재에 수희 동참하시어, 모든 업장 소멸하고
상서선망 조상의 왕생극락과 가족, 이웃의 안녕을 기원하는 무량한
공덕을 쌓으시길 기원합니다.



운영법주 해인사 주지 혜 일

입재 7월 5일(음 6/11) 토요일 오전10시
초재~6재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막재(회향) 8월 22일(윤 6/29) 금요일 오전 10시
법회장소 해인사 대적광전 및 만불보전

동참금		
생 축	1인 3만원	
영가위패	1위 1만원	
설 판	大설판 100만원	中설판 50만원

▪문의 및 접수 접수실 055)934-3105~6
▪계 좌 안 내 농협 351-0744-6572-93 (예금주 : 해인사)

법보종찰 해인사



불설예수시왕생칠경 변상(해인사 소장)